

The Global Compliance Solution Leader

핀테크 사업자를 위한 자금세탁방지 대응 방안

주최 : 옥타솔루션

후원 : 한국 핀테크협회

한국 자금세탁방지 전문가협회

2018. 03. 16

발표자 : (주)옥타솔루션 대표이사 박 만 성

Contents

01. 회사소개
02. 금융 산업의 발전과 준법동향
03. 레그테크란 무엇인가?
04. 레그테크를 이용한 준법 대응 방안
05. 핀테크 업체의 준법 대응 방안

옥타솔루션은?

옥타솔루션은 자체 개발한 RULE 엔진 및 Big Data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레그테크 (Regulatory Technology) 기반 **준법 지원 업무 솔루션**을 개발하여, 우리의 고객에게 ‘Compliance Issue Free’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임.

★ : RegTech Ready Solution

SI : Legacy Interface & Data Mart 구축 Service

AML & RBA

자금세탁방지 및
Watch List Filtering
위험 기반 평가 관리

- ★ AML-PRISM™
- ★ WLF-PRISM™
- ★ RBA-PRISM™

FATCA & CRS

해외 금융 계좌 신고
&
다자간 금융 정보 교환

- ★ FA-PRISM™
- ★ CRS-PRISM™
- ★ iCRS-PRISM™

FDS/EUS

보험 사기 적발
보험 인수 심사

- FDS-PRISM™
- ★ EUS-PRISM™

AIS

감사정보 시스템
(내부통제/상시감시)
‘부정청탁금지법’ 시스템

- AIS-PRISM™
- ABS-PRISM™

e-Manual

지능형 전자 매뉴얼
(3D 인체 모형을
통한 보험 심사 등)

- eM-PRISM™

M-RULE (OCTA Business Rule System)™

OIF (OCTA Intelligent Framework)™

컨설팅 및 법률 자문

회사현황 및 고객/파트너

- 회사명 : (주) 옥타솔루션
- 대표이사 : 박 만성
- 회사설립 : 2012년 9월
- 자본금 : 5억
- 정규직 : 25명 (레그테크 연구원 8명)
- 프로젝트 수행 실적 : 35개 준법 업무 구축 프로젝트
- 특허 출원 : 2건
- FATCA/CRS : 국내 Market Share 1위

<수상 내역>

- 2015 09 ICT 유망기술 개발 지원 사업 연구과제 선정 - 미래창조과학부
- 2015 12 ICT 유망기업 K-Global 300 선정 - 미래창조과학부
- 2016 09 디지털 이노베이션 대상 수상 -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일보
- 2016 12 IT 솔루션 대상 수상 - 머니투데이
- 2017 11 KOTRA 수출혁신기업상 수상 - KOTRA
- 2018 01 Financial Times 선정 아태지역 Fast Growing 1000 기업 36위, 국내기업 중 1위

고객



파이낸셜타임즈가 주목한 한국 기업

파이낸셜타임즈가 아시아-태평양 고성장 1,000대 기업을 발표했다. 이 중 한국 기업 104곳이 순위에 올랐다.



파이낸셜타임즈는 지난해부터 기업의 연평균성장률과 연도별 수익, 비즈니스 모델, 성장 폭 등 다양한 선정기준을 충족한 대륙별 고성장 1000대 기업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업 중 1000대 기업을 선정했다. 한국과 호주, 홍콩, 일본, 인도네시아 등 11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매출 성장률을 근거로 순위가 책정됐다.

한국 기업 중 가장 높은 순위에 이름을 올린 건 36위 핀테크 기업 옥타솔루션이다. 발표에 따르면 옥타솔루션은 연평균성장률 1,340%를 기록했다. 버즈빌은 연평균성장률 862%로 56위를, 유니테스트는 75위에 이름을 올렸다.

벤처스퀘어는 101위에 기록되며 스타트업 전문 서비스 네트워크로는 한국 기업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와 함께 100위권 내 순위를 올린 기업은 지피트리(107위) 제이스택(116위), I&C 테크놀로지(144위), S&K 폴리텍(150위) 등이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즈가 선정한 아시아-태평양 고성장 1000대 기업은 랭킹은 3월 13일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게재될 예정이다. 전체 순위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nancial Times 1000 High Growth Companies in APAC - 2018

FINANCIAL TIMES

FT 1000: High-Growth Companies Asia-Pacific

FT 1000: High-Growth Companies Asia-Pacific

The region's technology companies lead the way, according to list compiled with Statista



1000 High-Growth Companies Asia-Pacific 2018

statis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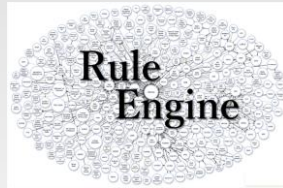
				1,893%	171.1%	4,057	50	2010
				1,755%	164.7%	6,657	90	2012
			Marketing	1,730%	163.5%	4,991	55	1984
				1,656%	159.9%	17,155	512	2011
				1,566%	155.4%	1,852	n/a	1983
				1,559%	155.1%	175,553	4,780	2011
			Services	1,555%	154.8%	46,727	n/a	2007
			Average	1,555%	154.8%	2,535	38	2012
				1,551%	154.6%	6,280	100	2013
			Services	1,499%	151.9%	14,158	21	2007
				1,487%	151.3%	1,644	100	2013
34	Fervent Synergies	India	Financial Services	1,389%	146%	5,840	n/a	2009
35	Qwikilver Solutions	India	Technology	1,385%	145.8%	13,113	272	2006
36	OCTA Solution	South Korea	Fintech	1,340%	143.3%	1,805	25	2012
37	Stackla	Australia	Sales & Marketing	1,300%	141%	5,198	58	2012
38	Raghuvansh Agrofarms	India	Agricultural Commodities	1,296%	140.8%	2,423	7	1995
39	ixigo	India	Travel & Leisure	1,292%	140.6%	3,269	110	2006
40	Online Marketing Gurus	Australia	Sales & Marketing	1,235%	137.2%	5,892	28	2012
41	Excavation Equipment	Australia	Construction	1,177%	133.7%	8,021	11	2011
42	Think & Learn	India	Education	1,158%	132.6%	36,886	1,200	2011
43	Mobisy Technologies	India	Sales & Marketing	1,116%	129.9%	1,536	99	2007
44	Delhivery	India	Transport	1,111%	129.7%	112,046	15,000	2011
45	Global Education	India	Education	1,106%	129.4%	3,934	123	2011
46	Acqua Media	Hong Kong	Advertising	1,076%	127.4%	3,480	8	2013



02. 금융 산업의 발전과 준법 동향

첨단 IT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 및 파생상품, 국제 금융 거래의 증가로,

금융 거래의 **복잡화/Digital 화/Global 화**



금융 거래를 일으키는 **인공지능이나 컴퓨터를 감시**해 하는 세상

다양하고 광범위한 **금융 사고 및 범죄**의 발생

FinTech사업자 및 비금융전문직 종사자(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보석상, 미술상 등)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

금융 감독기관은 선의의 피해자와 건전한 금융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해 금융업 규제/규정의 **빈번한 변경**에 더하여 **신규 규제/규정이 지속적으로 확대 및 철저한 준수 요구**

위법 시 해당 국가 금융당국 및 국제 기구의 규제로 **징벌적 벌금 부과**

국내외 금융 규제 현황

전통적인 금융업 규제/규정에 대하여 신규 규제/규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

전통적
금융규제

AML
고도화

RBA

FATCA

CRS

More is coming..



준법 지원업무의 특징

금융 기관의 준법에 대한 요구는 과거 각 국가의 금융 감독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서 이행 일정이나 이행 수준이 **국가별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최근의 동향은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나 FATCA/CRS처럼 각 국가 간의 협정에 의해 정해진 **국제 표준 협약을 따르는 것으로 변화** 되어 가고 있음. 이에 따라, 규정이나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도 국제적 표준에 의해 **징벌적으로, 예외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

- ✓ **금융 시스템의 글로벌화에 따라 준법의 기준 및 제도 글로벌화**
 - FATF와 같은 글로벌 감독 기구 탄생
 - 글로벌 표준 요건 정의 (글로벌 표준화된 협약이나 규약 및 법규를 근거로 구축)
- ✓ **징벌적 벌금 및 제재 강화 - no excuse!**
 - 천문학적 금액의 징벌적 벌금 부과
 - 금융 기관의 치명적 이미지 손상 혹은 파산으로 직결
- ✓ **법규/규정 등의 빈번한 변경 및 새로운 법규 및 규정의 발생**
 - 빈번한 유지보수 요건 발생
 - 법률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법규 해석 필수
- ✓ **전세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동시 적용 - 선택이 아닌 의무 사항**
 - ✓ **구체적인 시행 기준이 부족**
 - 국제 표준이 아닌 준법 업무 담당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이행
 - 불충분한 법률적 검증
 - 정해진 업종별 세부 이행 기준이 부족하다 보니 일관성/형평성 이슈 발생
 - ✓ **(아직까지는)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경쟁력을 강화하는 업무가 아님**
 - 문제/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최소한의 대응 - 중간만 하면 됨 (?)

■ 현 준법 대응의 일반적 오류

준법 대응에 대한 일반적 오류

- ✓ 솔루션 구축을 위한 범위와 복잡도가 심각하게 **저평가** 되어 있음
- ✓ 구축에 필요한 **예산과 스킬이 잘 못 계산** 되어 있음
- ✓ IT와 현업 인력은 본연의 업무로 이미 **과부하** 상태로
- ✓ 구축 후 지속적인 변경 및 추가 요건에 대한 **유지보수는 사실상 포기**

규제 준수율이 국제 기준 대비 매우 낮음



▪ 국내 규제 현황

국내 금융 규제는 기존의 AML에 더하여 RBA, FATCA, CRS 등, 신규 규제 및 제도가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으며,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AML의 고도화 등 향후 지속적인 고도화 사업이 전망됨

〈이행 일정〉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FINTECH
AML	2008	2009	2009	2010	2017 하반기
AML 고도화	2016	2017	2017	2018	
RBA	2016	2017	2017	2018	
FATCA	2016	2016	2016	2017	
CRS	2017	2017	2017	2017	

상기 일정에 따라 국내 대상 금융기관들은 도입 완료, 진행 혹은 준비 중에 있음.

그 외, FINTECH사 및 비금융 전문직 종사자도 규제를 하기 위한 입법이 진행 중이며, 2017 하반기 시스템 도입에 착수

〈소액 해외송금업은 2017년 7월18일 입법되어 시행에 들어 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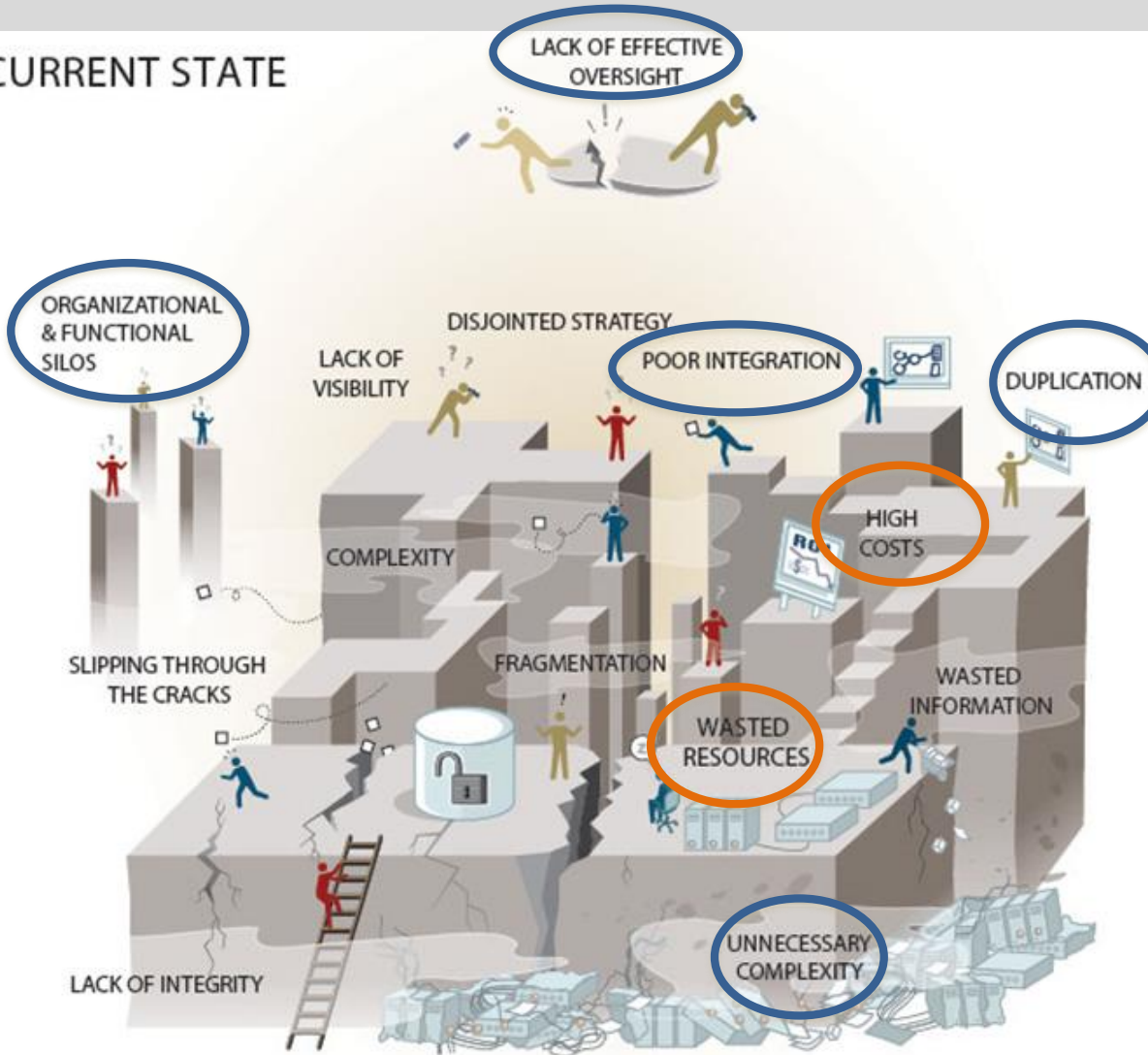
KoFIU에서는 2019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국가 상호평가에 맞추어 강도 높게 이행 수준 제고를 독려 중.

■ 세계 주요 은행들이 Regulatory Compliance에 쓰는 비용



출처 : Financial times , 2016

CURRENT STATE



©2012 OCEG, Permission by OCEG is required for reproduction and/or use of material
www.OCEG.org -- Derived from the OCEG GRC Illustrated Series

Done Wrong

부서와 솔루션이 독립적으로 구축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

- 업무간 통합이 않됨
- 중복이 많음
- 복잡도 증가
- 생산성 저하
- 부정적 Surprise가 수시 발생
- Third party risks 대응 부족
- 위험의 시각화 부족
- 대응 비용 증가
- 위험 증가 및 인지/통제 불가능

-> 각종 금융 범죄에 심각하게 노출



03. RegTech란 무엇인가?

■ 금융 사업 환경의 변화

파생상품, 국제 금융 거래의 증가로 급속도로 **복잡화/Digital 화/Global 화**에 따른 **금융 범죄 노출** 위험 급증
감독 기관의 이제까지 없었던 고강도 규제에 따른 **징벌적 벌금 부과** 및 폭주하는 규제 관련 **보고서 요구**

금융업 규제/규정의 **빈번한 변경**에 더하여 **신규 규제/규정이 지속적으로 확대**

FinTech사업자 및 **비금융전문직 종사자**(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보석상, 미술상 등)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

FINTECH사를 위한 **업종 맞춤형, 비용 효율적** 규제 대응 솔루션 필요성 부각

신 개념의 '금융 규제 대응 업무'의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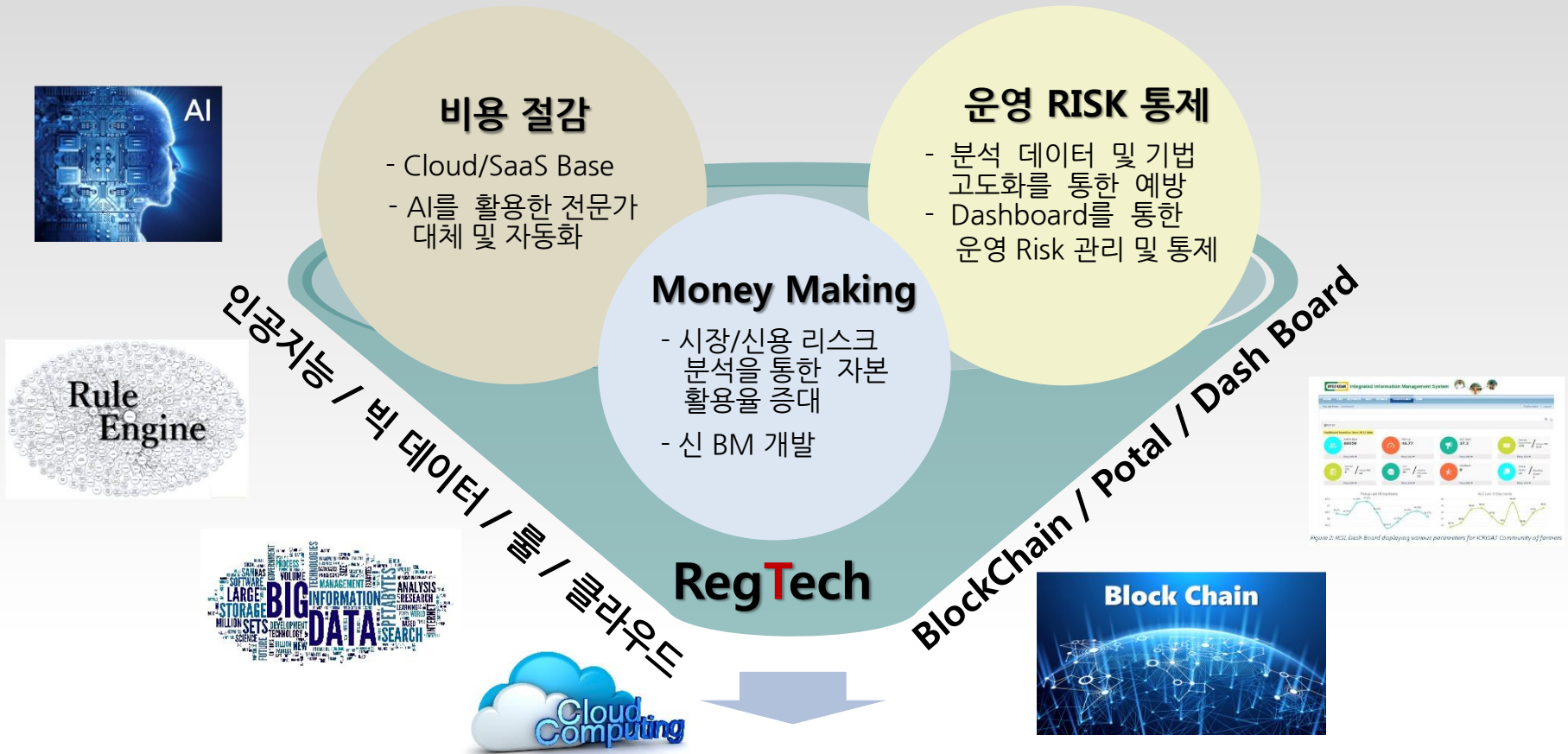
RegTech (Regulatory Technology : 금융 규제 대응 신 IT 기술) 의 탄생

▪ 레그테크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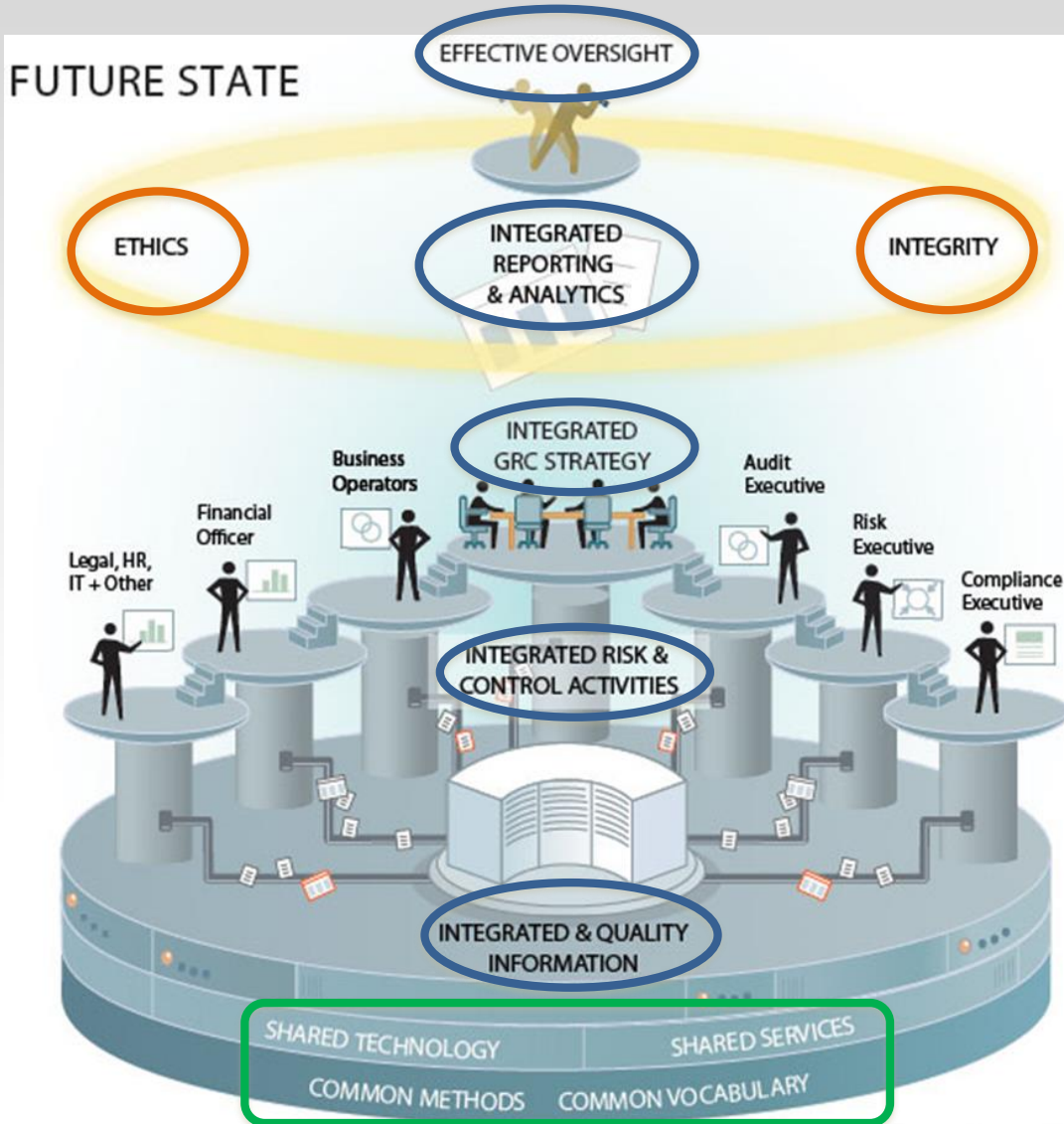
- 신 IT 기술을 사용하여 각종 규제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것 혹은,
- 신 IT 기술을 사용한 ‘민첩하고, 구성 가능하며, 통합하기 쉽고, 신뢰성 있고, 안전하며 비용 효율적’ 규제 대응 솔루션

‘RegTech’는 인공지능(AI), Rule,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Big Data, Cloud Computing, Module 화, Packaging 및 Block Chain/대체 키 등의 **최신 IT 기술을** 활용하여, **저비용의 업종/업무 별 맞춤형, 사전 예방형, 자동형으로 대체하고, 전사 준법 RISK를 Visual화하여 통제함**으로써, **변화에 유연하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혁신하는 IT 기술을 의미함.**

- by OCTASolution



최신 IT 기술을 적용하여 비용 효과적으로 규제에 대응하고, 사업 RISK를 사전 예방적으로 대응하며, 신 사업 모델의 준법 RISK를 신속·정확히 분석하여 맞춤형 대응을 통해 위험으로부터 고객과 사업자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2012 OCEG, Permission by OCEG is required for reproduction and/or use of material www.OCEG.org -- Derived from the OCEG GRC Illustrated Series

Done Right

조직, 프로세스 및 기술이 통합 아키텍처 하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 통합되어 효율적으로 운영:

- 중복/이중 작업 감소
- 정보 품질 향상
- 정보 수집/분석 능력 향상
- 일관성 확보
- 현업 및 IT 생산성 향상
- 위험의 시각화
- Third party risks 대응
- 위험이 감안된 성과 측정
- 부정적 surprise 발생 감소

- 위험 감소
- 비용 절감

-> 다양한 금융 범죄 조기 인지 및 통제



04. 핀테크 업체의 준법 대응 방안

■ 국가별 핀테크 관련 정책 - 육성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음. 미국과 영국은 금융 허브인 런던과 뉴욕의 역량과 TechCity와 실리콘밸리의 기술력을 결합시키기 위해 Level39와 FINTECH Innovation Lab을 조성하여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 영국 : 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 금융행위 감독기구)

- Project Innovate 발표 : 규제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에 열린 자세를 표명
- Innovation Hub (핀테크 지원 전담조직) 설치
- 2014년 8월 핀테크 종합 지원 계획 발표 : 가상화폐 개발 등
- 2010년 캐머런 총리가 TechCity를 세계 최고의 Start UP Hub로 만들 것을 선언
- 금융 중심지 Canary Wharf에 핀테크 클러스터인 Level 39를 조성하여 TechCity의 기술력과 기존 금융 산업 역량을 융합



✓ 미국

- 기술 도시 실리콘 밸리와 금융도시 뉴욕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뉴욕을 중심으로 핀테크를 육성
- 2010년 뉴욕시는 액센츄어와 "FINTECH Innovation Lab'을 개설하여 인큐베이팅 Hub로 발전

✓ 중국

- 국영은행 중심의 비효율적 금융 시스템의 개혁을 위해 핀테크 산업을 육성
-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금융 시범 사업 권한을 부여
텐센트가 주도한 위뱅크 & 알리바바가 주도한 마이뱅크가 정식으로 민영은행 허가

■ 국가별 핀테크 관련 정책 - 규제

핀테크 기업들이 빠르게 영역을 확장하자 각국의 금융 감독 기관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출현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관련 규제를 정비. 핀테크가 활성화된 국가에서는 대부분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감독을 중시**. 핀테크 규제의 핵심은 **편의성과 보안성의 균형**

✓ 영국 : 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 금융행위 감독기구)

-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관리를 강조.
- 이용자 편의를 위해 금융 거래 시에는 절차를 완화하는 대신, 사후에 부정, 사기 거래를 찾아내고 문제를 걸러냄
- 일률적인 규제를 강요하지 않고 거래 규모나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규제 강도를 차별적으로 집행하는 선별적 규제
- 사고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서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여 자율적으로 규제에 따를 수 있도록 유도.

✓ 미국

- 핀테크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요소 중 하나는 **엄격하지만 예측 가능한 금융 규제**
- 비용 편익 분석을 바탕으로 **비합리적 규제를 최소화**
- **비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er)**와 같은 면책 제도가 있어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
-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기관이 특정 사업의 합법 여부를 감독 기관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제도
허용을 받게 되면 추후 감독 기관이 징계를 하지 못 함

✓ 중국

- 사전 규제보다 사후 관리에 집중
- 중국 정부는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새로운 산업 분야는 **태동기에는 완벽하게 관리하려 하지 않고 관망**
- **산업이 성장한 후에는 관리 감독을 시행**
- 핀테크가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인민은행이 아닌 금융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결제나 송금에 대해 규제
- P2P 대출이나 크라우드 펀딩 등에 대해서도 규제를 신설하려는 움직임
- 암호화 화폐 거래 금지 조치 등

FINTECH 사업자의 고민은?

알리페이 (600조원 결제), 애플페이, 페이팔, 트랜스퍼와이즈(외화 송금), 엠페사,뱅크월렛카카오, 토스, 벤모, 카카오페이, 라인페이, 네이버페이, 페이나우, 페이코, 코인원 등 수없이 많은 FINTECH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들에게 **자금세탁방지 등 금융 규제 대응 의무**는 이미 세계적 추세임. **중소규모 FINTECH**의 경우, 금융 준법 대응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가 어려우며, 준법 대응이 안 될 경우 **사업 모델 자체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임.

<FINTECH 사업 분야>



자산	실시간 시세	원화 기준 변동률 (%) / 거래량	거래량
비트코인	3,529,000 원	-37,000 원 (-1.03 %) ▼	21,291
이더리움	295,800 원	+8,100 원 (+2.81 %) ▲	1,589,622
대시	213,250 원	-7,400 원 (-3.35 %) ▼	34,730
라이트코인	51,110 원	-1,580 원 (-2.99 %) ▼	327,753
이더리움 클래식	17,465 원	-430 원 (-2.40 %) ▼	1,035,142
리플	204 원	-4 원 (-1.92 %) ▼	145,968,023
비트코인 캐시	565,000 원	+22,000 원 (+4.05 %) ▲	56,918

FINTECH는 기존 금융 사업 모델 중 일부를 특화시킨 것임, 따라서 그 **사업 모델의 성격에 맞는 맞춤형 컴플라이언스 지원**이 되어야 함, 또한 기존 금융 기관 대비 규모가 영세하므로, 비용 효과적인 SaaS 형태의 시스템 지원이 필요함.

REGTECH를 이용한 준법 대응은 새로운 혁신적인 금융 사업 모델(FinTech)로부터 **소비자(고객)을 보호하고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며, 궁극적으로 금융 사업자를 규제 당국으로부터 징벌적 벌금과 각종 규제에 비용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함으로써 **금융사업자와 그 사업 모델을 보호**하고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기술임

FINTECH (소액 해외 송금) 사업자들이 풀어야 할 과제

2017년 7월 18일 부터 시행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연간 16조원에 달하는 해외 송금업에 핀테크업체들의 참여가 개시 되었음. 시중은행의 송금 수수료는 송금비용은 4%~6%인 반면 핀테크 업체들은 1%~2%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2017 G20 정상회의에서 FATF 국제 기준의 신속하고 정확한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에 따라 핀테크 업체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 향후 기존 금융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에 준하는 기준으로 이행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최우선으로 **WLF(요주의대상 확인) 및 KYC(고객알기 제도)**를 이행해야 함. 향후 FATF 및 금융감독기관의 기준에 따라, **RA(위험평가) 및 TMS(거래추적 및 분석) 이행에 따른 STR(혐의거래)을 KoFIU에 보고**해야 하며,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주기적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함.

<핀테크 업체들이 풀어야 할 과제>

실명 확인 :

- ✓ 100만원 이상 송금 시, 신분증촬영, 영상통화, 기존 계좌활용, 집배원 확인 중 2가지를 거쳐야 하며 매번 실시해야 함

자금세탁방지 의무 :

- ✓ **Watch List Filtering** : OFAC/FATF/UN/CIA/금융위 등에서 주기적으로 발행하는 금융거래 요주의 대상인지를 매 거래 시 확인하는 절차.
- ✓ **고객 신원 확인**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및 실소유자, 금융거래 목적, 자금원천 등을 확인 및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을 경우 거래 내역을 KoFIU에 보고
- ✓ 100만원 이상 송금 시, 송금인, 수취인의 이름, 계좌번호를 수취 금융회사에 제공
- ✓ **내부통제제도** 마련(임원급 책임자 지정 및 전직원 대상 정기 교육 실시)
- ✓ 독립기관을 통해 감사를 진행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체계 구축

<해외 송금 수수료 비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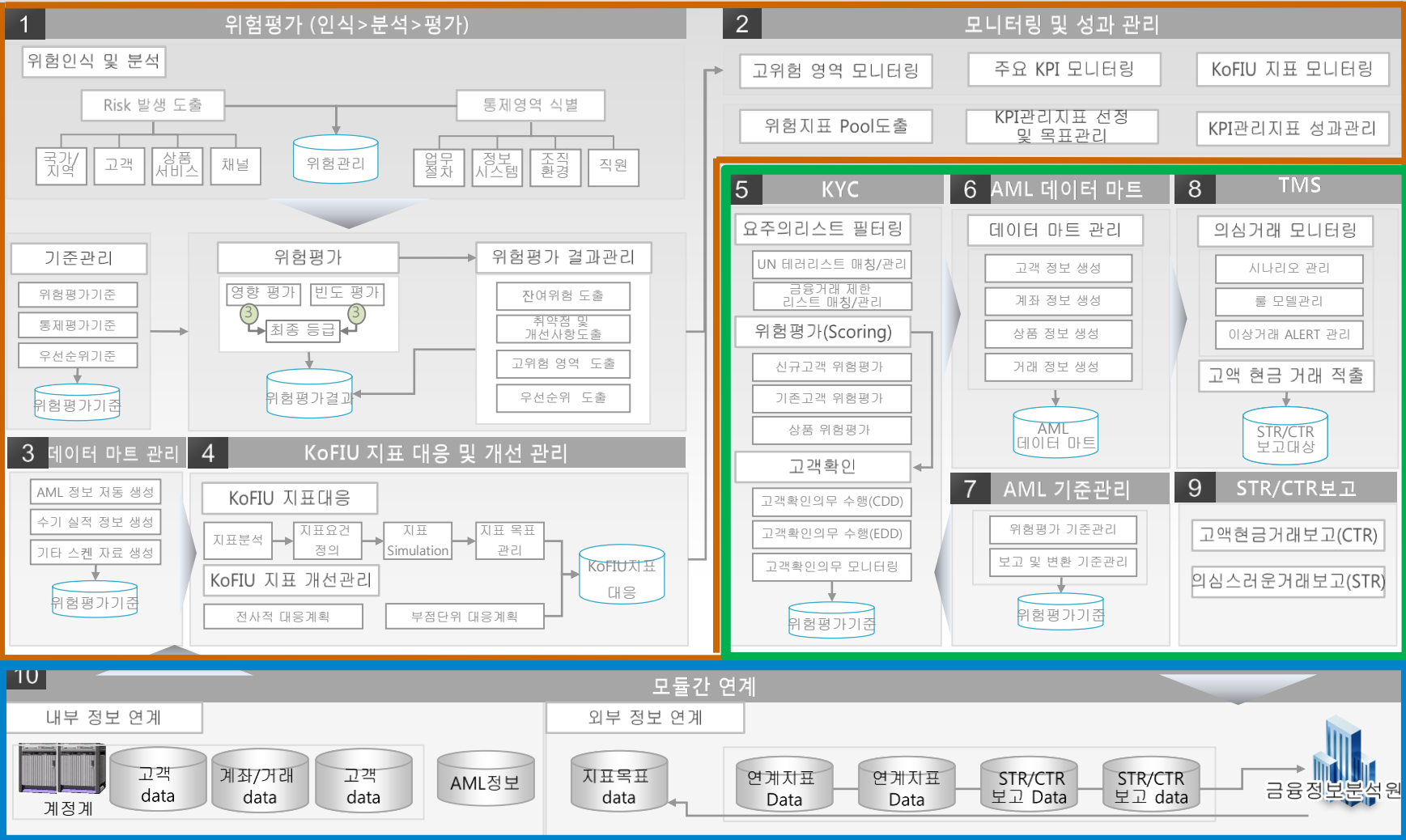
주요 은행 해외송금 수수료			소액 해외송금 수수료			
은행	창구 수수료	전신료	은행	송금한도	수수료	전신료
신한은행 우리은행	500달러 이하-5000원	8000원	우리은행 위비 글로벌 퀵송금	1회 2000달러	3000원	2000원
	2000달러 이하-1만원 5000달러 이하-1만5000원 2만 달러 이하-2만원 2만 달러 초과-2만5000원		신한은행 써니뱅크 간편해외송금	1회 2000달러	없음	8000원
KEB하나은행		창구-8000원 인터넷-5000원	KEB하나은행 1Q트랜스퍼송금	1회 1만 달러	5000원	없음
KB국민은행	2000달러 이하-1만원 5000달러 이하-1만5000원 1만 달러 이하-2만원 1만 달러 초과-2만5000원		KB국민은행 KB글로벌바로송금	1회 2000달러	없음	5000원
		카카오뱅크 해외송금	1회 3000달러 1인당 연 2만 달러	은행 수수료의 10%	없음	

FATF : 국제 자금세탁 방지기구

KoFIU : 한국 금융정보분석원

AML/RBA 전체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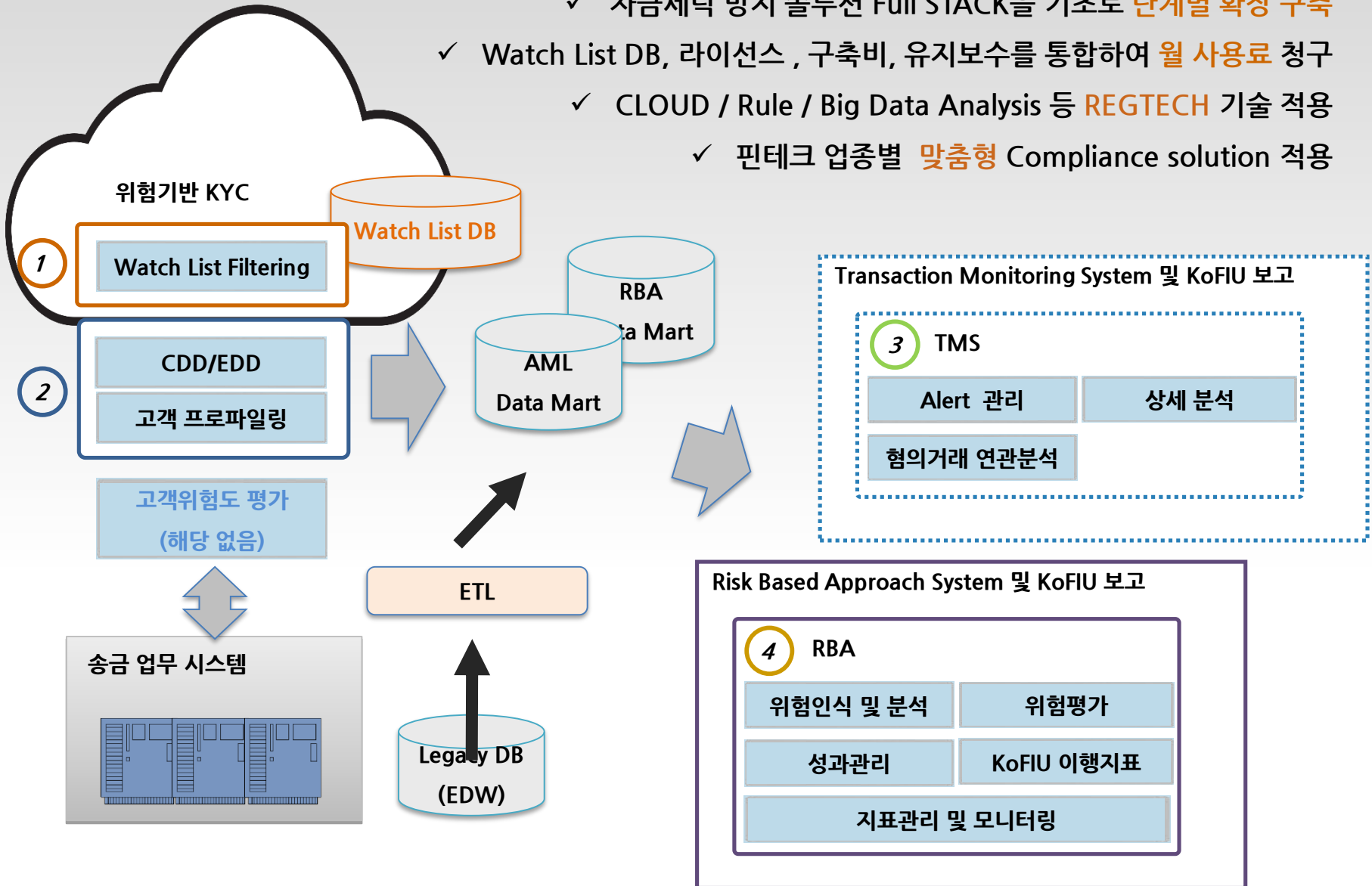
RBA/
AML
프로세스



— AML — RBA — 공통

소액 송금 핀테크 업체를 위한 맞춤형 제안 (예시)

- ✓ 자금세탁 방지 솔루션 Full STACK을 기초로 단계별 확장 구축
- ✓ Watch List DB, 라이선스, 구축비, 유지보수를 통합하여 월 사용료 청구
- ✓ CLOUD / Rule / Big Data Analysis 등 REGTECH 기술 적용
- ✓ 핀테크 업종별 맞춤형 Compliance solution 적용



■ 제공 내역 및 구축 기간 (예시)

해외송금업무를 위한 자금세탁방지 대응 시스템을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단계 별 구축**

1

2주~4주 소요

- ✓ **Watch List Data**
 - OFAC, UN, FATF, CIA, EU 미 금융위원회 등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인물정보 데이터를 WEB SCRAPPING 기술을 사용하여 취합하고 변동 시마다 제공
 - 자동 업로드 기능 제공 (파일 업로드 / Online)
- ✓ **Watch List Filtering Engine**
 - 7 가지 Fuzzy Matching Algorithm 으로 검색
 - 각 Algorithm별 가중치를 설정하여 최종 유사도 제공
- ✓ **송금 업무 Application 과 인터페이스 (API 제공)**
 - 기간제 WAS 에 Embed : Java API 사용 (검색기능, White List 등재 기능, 설정 값 변경 기능)
 - 독립 WAS 사용: Java API 또는 Java script API 사용

2

3주~4주 소요

- ✓ **KYC (EDD) 설계서 제공 (고객사가 직접 구축) - WLF와 동시 진행**
 - 화면 설계서, DB 설계서 등 제공

3

4

4주~8주 소요

- ✓ **AML/RBA 시스템 구축**
 - 현재 인터넷 은행에서 운영 중인 AML/RBA 솔루션을 설치하고,
 - 추후 KoFIU 지침이 확정되면, 그에 맞추어 커스터마이징 작업 수행

- ✓ 업종 특성에 **맞춤형으로 기능별 최적화 구축**
- ✓ 다양한 금융기관 레퍼런스를 통해 **검증된 솔루션**
- ✓ 철저한 규정 분석을 통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정 준수도**
- ✓ 감독기관의 요구에 발맞춘 **단계별 확장 구축**
- ✓ 향후 추가 규정/규제에 손쉽게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확장성**
- ✓ 잦은 변경이나 추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지보수 편이성**
- ✓ 레그테크 및 RPA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및 단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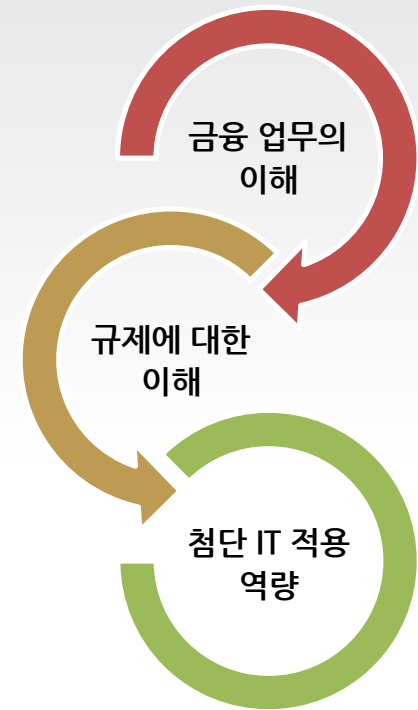
■ 옥타솔루션 제안의 특징점

자금세탁방지 제도는 FATF의 국제 기준에 따른 것이며, 핀테크 사업자들도 궁극적으로는 사업 특성에 맞추어 준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사업 진입 초기부터 자금세탁방지 Full Stack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금융감독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초기 WLF 구축 시 부터 **향후 업종맞춤형 'Full Stack 자금세탁방지'로 비용효율적 확장을 감안하여 동일 플랫폼 하에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1 옥타솔루션은 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AML/RBA) 및 금융준법 관련 전체 솔루션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자금세탁방지의무 단계적 확장 시에 동일 플랫폼 상에서 **비용효율적으로 신속/정확히 대응**할 수 있음.
- 2 향후 내부통제/상시감시 솔루션 및 외국인 계좌 정보 교환(FATCA/CRS) 솔루션 등 다양한 금융 준법 분야 규정 적용 시에도 **비용 효율적으로 신속/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음
- 3 On Premise 및 CLOUD 기반 서비스 모두를 지원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CLOUD 적용 시 TCO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음
- 4 옥타솔루션은 **금융감독원 주관 레그테크 포럼 참여업체**이고, **금융정보분석원 4차 사업 수행업체**임. 따라서 핀테크 회사에 적용하려는 준법 규정 및 효과적인 대응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선 지원할 수 있음.



<옥타솔루션 핵심역량>



Thank You!

'The RegTech Company'

옥타솔루션 영업대표 유 명진 차장

010-7226-6228 mjyu@octasolution.co.kr

옥타솔루션 대표이사 박 만성

010-9519-6355 mspark@octasolution.co.kr

(주) 옥타솔루션

ADDRESS _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길 21,1013~14호 (양평동5가, 선유도 코오롱디지털타워)

PHONE _ (02) 2062 - 5078

FAX _ (02) 3453 - 3037

HOMEPAGE _ www.octasolution.co.kr

